



제목	Women and Religious Life in Byzantiu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1. 8. 20.
저자	Alice-Mary Talbot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326
ISBN 또는 ISSN	978-0860788737

내용 요약

이 책은 비잔틴 전문가 앨리스 메리 탈보트(Alice-Mary Talbot)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출판한 논문 18편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비잔틴 여성의 종교적 삶과 일상적 삶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몇몇 논문들은 비잔틴 남성의 종교적 삶과 비잔틴적 거룩함의 개념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 연구와 중세교회사 분야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책이라고 평가된다. 저자는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시기인 팔라이올로구스 왕조 시기(1261-1453)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 시기는 초기 비잔틴을 선호하는 비잔틴 연구자들이 무시하는 시기로서 비잔틴 제국의 쇠퇴기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8편의 논문은 크게 네 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네 개의 주제는 여성과 종교적 삶, 거룩함과 성인의 전기, 수도원 제도, 수녀원이다. 여성과 종교적 삶을 다룬 첫 번째 주제의 논문들에서 저자는 비잔틴 여성들의 삶을 가정생활과 가정 이외의 생활 모두를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비잔틴제국의 태도는 양면적이어서, 여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면 결혼과 계약법상에서는 여성을 차별했는데, 기독교가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를 강화시켰다고 한다. 거룩함과 성인의 전기를 다룬 두 번째 부분은 성인들의 생애를 통해 비잔틴 기독교인의 삶을 소개한다.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비잔틴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수도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수도원의 문화적 활동과 수도원의 자선 기능과 수도원의 경제적 측면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비잔틴 여성들의 공간으로서의 수녀원을 조명한다.